

# 해외여행객으로 복직...무안국제공항 '힘찬 비행'

### 올 1~10월 32만3457명 이용...증가를 전국 8개 공항 중 '최고' 도, 국제선 유치 활동 성과...겨울철 대만 등 9개국 18개 노선

무안공항이 운항 노선 및 이용객 증가로 복직거리고 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는 이용객 증가에 맞춰 무안공항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정기편 운항에 나서며 한편, 전 좌석을 이용객들이 개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진에어가 그동안 80% 이상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공급했던 기존 방식을 바꾼 데는 개인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

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9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은 32만 3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2495명)보다 87.5% 증가했다.

무안공항은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으로 이용객이 증가했다.

이용객 증가는 전남도의 국제선 유치 활동이 한 몫을 했다.

전남도는 전남관광재단과 국외항공사 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세기·정기편 유치에 나서는 한편, 어렵게 확보한 국제선 노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직원 가운데 500~1000명(1팀당 4명 이상)을 선발, 해외에서 전남 홍보 활동을 펼치도록 하면서 공무원 1인당 공항 활성화 경비를 지원하는 등 간간힘을 쓰고 있다.

이용객 증가에 따라 운항 노선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무안국제공항에 따르면 동절기 운항 노선은 9개국 18개 노선으로, 지난해 동절기보다 3개국

6개 노선이 늘었다.

올 동절기에는 ▲일본 오사카·나리타·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라오스 비엔티안·루앙프라방 ▲필리핀 마닐라 ▲중국 항저우·장자제·리장 ▲캄보디아 시엠립 ▲베트남 나트랑·다낭·달랏·하노이·푸꾸옥 등 9개국 18개 노선을 무안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항공사측은 특히 동절기 겨울방학 시즌과 맞물려 젊은층·가족 단위 관광객이 선호하는 일본·대만행 항공편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이용객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사들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진에어는 무안공항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정기편 운항에 나서는 등 이용객 증가에 맞춰 서비스 확충에 나섰다.

진에어는 정기편 운항에 따라 전 좌석을 이용객들이 개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 자유여행 수요 충족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무안공항 관계자는 "무안공항 노선 다변화 및 정기선 확대 등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 어린이집 폐원 대응 간담회 개최 10년간 270곳 감소·미충원 늘어

전남도가 저출산으로 폐원 위기에 내몰린 어린이집 및 보육현장의 서비스 향상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270곳에 이르고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도 101곳으로 늘어나는 등 저출생 장기화로 인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어린이집 폐원 대응 간담회를 열고 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남연구원 최희혜 연구위원이 '전남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어린이집 폐원 특성', 김현민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폐원 유형별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전남도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주제 발표는 전남지역의 저출생 실태를 엿볼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영·유아(0~5세)는 5만 4397명으로 2010년(9만 5123명)에 견줘 42.8%가 줄었고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952곳)도 10년 전(2013년 1222곳)보다 22.1%(270곳) 감소했다.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도 101곳으로 10년 전(2013년 77곳)보다 31.2%

(24곳)나 많아졌다.

전남 어린이집 정원충족률도 67.2%에 불과, 2010년(82.2%)에 비해 15%나 급감했다. 어린이집의 폐원 사유는 운영난과 원아 감소로 문을 닫은 게 원인으로 꼽혔다.

참석자들은 또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린이집 폐원 대응책과 저출산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위해 보육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 사회적·마을 기업 성장 가능성 봤다

### 전남도, 투자유치 지원 나서

지역 이주여성을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독특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과를 만들어내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쿠기아는 지난 13일 한전 KDN에서 열린 '2024 사회적경제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시장진출 지원사업' 본선 대회에서 두부과자로 연매출 40억 여원을 달성,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남도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한전·한전KDN·한전KPS 등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본선 대회에는 지난 10월 투자 역량 강화교육을 이수한 사회적경제기업 20개사 중 모의대회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가 참여했다.

쿠기아는 두부과자 생산·판매를 통해 지난해

매출 41억 2400만원을 달성하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아름답게그린배 영농조합법인도 지역자원인 배를 활용한 제품 개발로, 영농회사법인 엔자임팜은 전통발효 방식의 발효곡물당을 활용한 점으로, 농협회사법인 ㈜담우는 지역 어르신과 나물 세계화를 위해 힘쓴 점 등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또 지역 대표 마을기업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이용한 스틱 누룽지로 지난해 9억 98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농업회사법인 썬지플랜트식품(주), 스마트팜을 활용한 새싹땅콩 고기능 천연소재 개발 및 제품화 방안을 소개한 ㈜나눔바이오

는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이들 6개 기업에는 도지사 상장금 총상금 5500만원이 주어지며 타 투자대회 참여와 투자기관 연계 기회도 제공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고흥군 '전남도 산불 진화·지휘 경연대회' 대상

고흥군이 '2024년 전남도 산불 지상진화·통합지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는 22개 시·군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군별 10명이 팀을 이뤄 경연을 펼쳤다.



(사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지상진화 능력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산불 통합지휘 분야는 산불 발생 시 현장 지휘본부 설치·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지휘차 고도화시스템 작동, 산불상황관리시스템 운영, 산불 진화 상황판 작성, 드론 활용 능력, 산불 진화 전략도 작성을 평가했다.

산불 지상진화 분야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장비 숙달 여부 측정으로 진화차 작동, 간이수조 및 중형 펌프 설치, 분배기·호스 설치 및 답수, 진화선 구축 등을 평가했다.

종합 대상을 차지한 고흥군 외에 순천시도 산불 통합지휘 분야 최우수상, 우수상은 담양·영광군, 장려상은 여수·보성·강진·영암군이 수상했다. 산불 지상진화 분야에선 진도군이 최우수상, 우수상에 화순군·나주시, 장려상에 해남·무안·장성·완도군이 선정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불 예방 활동과 조동진화 태세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 3만7000여 농업인에 545억

전남도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545억원을 3만 7000여 농업인(법인)에게 순차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을 활용해 두류, 가루쌀, 식용옥수수,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물별로 두류와 가루쌀은 ha당 200만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 식용옥수수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동절기에 밀, 보리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면 ha당 50만원, 동계(밀·조사료)와 하계(논콩·가루쌀)에 해당되는 경우 필지 ha당 인센티브로 100만원을 더 지급한다.

545억원의 전략작물직불금 중 동계작물은 2만 9000명에게 227억원, 하계작물은 8000명에게 290억원, 전략작물 인센티브로는 28억 원이 지급된다. 전국 지급액(1659억 원)의 32.8% 규모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루쌀, 밀, 콩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안정적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여수 김춘섭 엔바이로젠 대표,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자를 발굴해 추천한 여수 김춘섭(사진) ㈜엔바이로젠 대표가 2024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했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수산 분야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해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인재에게 수여한다.



가능한 스마트양식시스템을 운영·보급함으로써 인건비 감소 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또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어류 질병에 따른 폐사량 저감 방법을 개선·연구하기 위해 ㈜엔바이로젠을 설립, 어류 병원성 질병을 10분 이내에 진단가능한 신속진단키트 10종을 개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